

경남, 뿌리기업에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본격화

7개기관·도내뿌리기업100여사참석
공모사업 시행 20개사 지원 계획
'경남기업119' 규제개선 신고 운영

경남도와 한국전력이 도내 중소·뿌리 기업 100여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경남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지원청, 한국전력 경남본부, 한국남동발전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올해 뿌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업종이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항공, 방위산업의 기초가 된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지만, 중사 기업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뿌리기업의



경남 중소·뿌리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뿌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해 20개사를 선정,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경남기업119'를 통해 기업에 상응, 규제개선 신고를 받는 한편, 8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한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형 지속가

능경영(ESG) 확산 사업을 통해 34개사를 공모·선정하여, ESG 경영진단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교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로 교체하는 뿌리기업에 탄소펀드 및 동반성장펀드 35억 원을 활용하여 설치투자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한국전력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4대 고효율기기(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기) 교체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우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예산을 기존 55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소개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18억 원 규모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영세기업의 전기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도내 주력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 및 탄소배출 감축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에너지 효율 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에너지 효율화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컴퓨터 무상 점검·수리 진행

진주시는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진행한 무상 수리 사업 결과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무상 수리 지원 대상을 관련 복지 단체까지 확대하고, 일반 데스크톱 PC 외에도 노트북 수리까지 지원해 사업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국가유공자와 관련 복지 단체 등이다.

/진주(경남)=김영천 기자

강진군

보은산 '감성숲길'로 재탄생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 길(둘레길) 1차 구간이 준공되었다.

이 구간은 보은산 약수터 삼거리에서 시점으로 금곡사를 잇는 트레킹 길로 사업비 2억 6천만원(도 50%, 군 50%)을 투입해 노선 3.24km, 폐수로 52개소, 목계단 138계단, 이정표 5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트레킹 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강진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등산로와 달리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될 수 있는 감성 숲길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난에 300억 지원

울산 울주군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100억 원을 늘려 지급한다. 또 이차차액지원율도 2.5%에서 3%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과 오는 6월, 9월 등 총 3차에 걸쳐 각각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차차액보전금 3%를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진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선포식 개최

울진군이 지난 17일 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 했다. 손병복 군수는 기념사에서 "성원해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임질 큰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조로 조성된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구룡포도서관 내부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바다품은 구룡포도서관 책 보며 힐링하러 오세요"

여행·바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테마 도서 전시 등 체험상설 진행

포항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도서관들이 아름다운 바다 경관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구룡포도서관은 도서관 어디에서나 책을 읽으며 구룡포 바다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친 몸과 정신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여행·바다'를 특성화 주제로

한 자료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품격을 반영해 큰 활자의 자료도 비치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에서는 도서원화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따로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테마 도서 전시, 컬러링 엽서 체험 등이 상설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5만 6000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이용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목포, '남진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금요일·토요일 오후 10시까지 운영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남진야시장이 17일 재개장한다. 남진야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마련되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개장 첫날에는 우리 지역 출신 가수인 윤선영의 축하 공연과 함께 농수로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대에는 낙지호롱,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 등의 프리마켓 21개 매대가 판매를 준비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단속

시군 협업 3~5월, 7~8월 점검
6월, 7월 검역본부와 합동 단속

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 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꾸준히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

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한 결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영업자 필수 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도내 반려동물 모든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 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 등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김영천 기자 metrobusan3@

고창군, 새 이름 단 '고창나들목공원'

초입 물놀이장 등 명품공원

고창군 초입에 물놀이장, 생활체육 테마공원, 소나무와 자작나무숲 등을 갖춘 명품 공원의 이름이 '고창나들목공원'으로 확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 초입의 공원(석교리 산8)의 이름이 군민선호도 조사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나들목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나들목'은 나가고 들고 하는 길목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단어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읍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창의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총 13만 4450㎡ 면적에 테마숲, 산책로, 주차장, 편의 시설 등을 갖췄다.

도심이 시작되는 관문에 기존공원(생활체육테마공원, 새마을공원)과 연계해 군민에게 다양한 녹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공원 내 유휴공간을 재정비한 물놀이장 개장에 예정돼 있다. 무더운 여름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물놀이장 주변엔 공원 및 체육시설(족구장, 인공암벽장 등)이 만들어져 고창군 대표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창(전남)=양수영 기자